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20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4년 3월 24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지부 요구안 확정하고 2014년 투쟁 시동

지난 17일 지부 임시대대 열려

지부가 17일 임시대대를 열고 2014년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특히 2014년은 통상임금을 비롯해 많은 사안들이 사업장 범위를 넘어서 노동법 개정과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의원들은 더욱 비상한 임단투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2014년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사업장에서 얼마나 많은 많은 요구안을 쟁취하느냐를 넘어서 정권 차원의 노동권 말살 정책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중요한 2014년이다.

지부와 지회의 조직력 복원이 핵심이다

그간 지부의 지도력, 지회의 조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지부의 지도력은 곧 지회의 조직력에서 나온다. 그래서 올해 투쟁은 지회의 조직력을 회복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다. 통상임금과 연관된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해 중요한 요구안이 많은 올해 투쟁에서 단결된 모습을 통해 지부, 지회의 조직력을 복원해내고 그 힘을 바탕으로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임시대대에서 확정된 지부 요구안은 4가지이다. 임금은 기본급 159,614원 정액 인상을 요구한다. 또한 통상임금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본급, 상여금, 제 수당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더불어 임금체계 개편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 후 개편하도록 못박는다. 그리고 감염병에 걸린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도 요구한다. 특히 통상임금은 중앙교섭, 지부교섭, 지회교섭에서 모두 요구안이 들어가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벌써 근로기준법을 개악해서 통상임금을 난도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임단투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지부 조합원 전체가 함께 한걸음 전진하는 2014년!

이제 2014년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물러설 수도 없는 싸움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법은 단 하나다. 단결! 현실을 탓하며 주춤거리지 말고 현실에서 한걸음만 앞으로 나가자는 각오로 투쟁을 시작하자. 올해 투쟁은 지부 전체가 다 같이 한걸음 전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자.

박근혜 퇴진! 노동탄압 분쇄! 2014임단투 승리!

2014년 투쟁 승리하자!

콘티넨탈, 보쉬전장 독일과 연대 추진

독일자본이 국내에서 벌이고 있는 악질적인 노조파괴에 대해 독일 노동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 19일 독일노총 중앙집행위원인 프랑크 자흐는 콘티넨탈지회 박윤종 지회장과 보쉬전장지회 이화운 지회장을 만났다. 자흐는 이 두 회사의 노조파괴를 확인하고 놀랍다고 이야기했다. 독일에서도 사용자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 공작을 벌이기도 하는데 면허가 취소될 정도로 전면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진 않는 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보쉬는 독일에서 윤리적 경영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한국에서 이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했다.





처음 노조파괴가 진행될 당시 독일에서는 노동조합이 2개가 된 것은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노조를 새로 설립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흐는 창조컨설팅이 설립 취소까지 된 지금 상황에서 이런 불법 컨설팅 업체와 계약하고 노조를 파괴하려고 한 범죄 행위는 다시 문제제기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해서 독일의 노조와 연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흐는 이번 만남을 통해 독일 자본이 한국의 노동자들을 얼마나 탄압하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독일로 돌아가면 보쉬와 콘티넨탈 노조에 현 상황을 알리고 연대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이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 고속도로 CCTV로 희망버스 감시

지난 15일 옥천의 유성지회 고공농성장에서는 전국의 양심적 시민들이 모여 희망버스 행사를 진행했다. 매우 평화롭고 진지하게 진행된 희망버스는 많은 이들에게 노조파괴 문제를 알리며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희망버스 행사가 끝난 직후,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다. 경찰이 고속도로 CCTV를 이용해서 집회 참가자들을 감시했다는 것이다. 명백히 현행법상 불법행위이다.

장하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5일 경부고속도로 옥천IC 부근에 설치된 고속도로용 CCTV가 규정 각도를 벗어나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따라다닌 것이 확인됐다. 고속도로용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임의조작이 경찰의 지휘였지만 관계자들은 불법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점”이라고 밝혔다.

충북경찰은 집회 감시가 아니라 고속도로 사고예방을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결국 고속도료용 CCTV를 규정된 각도를 벗어나 집회 참가자들을 비추는데 사용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충북 경찰은 당시 집회장소가 고속도로랑 35m 밖에 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옥천 농성장을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라면 그 말이 얼마나 우스운 변명인지 알 수 있다. 옥천 농성장은 고속도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고속도로는 고가도로로 지나가고 농성장은 그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로 고속도로 교통안전과는 무관하다.

최근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청와대, 국정원, 검찰, 경찰 어디 하나 법대로 원칙대로 움직이는 곳이 없다. 이러니 지역 경찰도 집회 감시하겠다고 고속도로 CCTV까지 불법으로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노동권 허무는 규제개혁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도 청년인턴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데 대해 후폭풍이 거세다.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 유지해 온 규제를 노동부 스스로 허물겠다는 얘기다.

문제는 청년들이 이미 진출해 있는 벤처·지식사업 분야의 근로조건이 형편없다는 점이다. IT서비스업계가 대표적이다. ‘대기업-하청-재하청’으로 이뤄진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밑바닥에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산업경영학부)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업체가 1억원에 프로젝트를 발주하면 을이 8천만원, 병이 6천만원, 정은 4천만원으로 단가가 깎이는 구조”라며 “마지막 실행단계에서는 1억원의 프로젝트가 4천만원에 맞춰지고, 해당 하청업체에 속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린다”고 설명했다.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둔 채 5인 미만 업체에 청년인턴 투입을 허용하겠다는 노동부 계획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문호 워크인연구소 소장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젊은이들을 다단계 하도급의 말단인 영세업체에 투입할 경우 업체 간 제 살 깎아 먹기 식 경쟁이 심화하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_iswcool@naver.com



<3.17 지부 임시대대>



<3.17 지부 임시대대_삼성 서대전분회장>



<3.22 현장활동가 맞춤교육_518 묘역>



<3.23 현장활동가 맞춤교육_지리산>